

<http://dx.doi.org/10.17703/JCCT.2023.9.6.419>

JCCT 2023-11-49

간호대학생의 다문화인식과 다문화효능감의 관계에서 감성지능의 매개효과

The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cultural Perception and Multicultural Efficacy of Nursing University Students

나은하*, 김미정**

Eun-Ha Na*, Mi-Jung Kim**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다문화인식과 다문화효능감과의 관계에서 감성지능의 매개효과를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다문화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은 J도와 G시의 2개 대학의 간호학과 학생 179명으로 수집된 자료는 SPSS 23.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independent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을 하였고, Process macro 4.0 프로그램을 통해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다문화효능감은 다문화인식($r=.596, p<.001$), 감성지능($r=.620, p<.001$)과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다문화인식과 다문화효능감의 관계에서 감성지능이 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beta=.471, p<.001$).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다문화효능감을 강화하기 위해 다문화인식과 감성지능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주요어 : 감성지능, 매개효과, 다문화효능감, 다문화인식, 간호대학생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provide basic data for developing strategies to improve the multicultural efficacy of nursing university students by identifying the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cultural perception and multicultural efficacy of nursing university student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179 nursing students at two universities in J province and G city. The SPSS/23.0 program was used to analyze the data with descriptive statistics; an independent t-test, analysis of variance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ediating effect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Process Macro 4.0. As a result of the study, nursing students multicultural efficacy was found to be positively correlated with multicultural awareness($r=.596, p<.001$) an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emotional intelligence($r=.620, p<.001$). Emotional intelligence showed a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cultural perception and multicultural efficacy($\beta=.471, p<.001$).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development and apply systematic programs to increase multicultural perception and increase emotional intelligence for improving the multicultural efficacy of nursing university students.

Key words : Emotional Intelligence, Mediating Effect, Multicultural Efficacy, Multicultural Perception, Nursing University Students

*정회원, 광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제1저자)
**정회원, 광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23년 10월 1일, 수정완료일: 2023년 10월 15일
계획재정일: 2023년 11월 5일

Received: October 1, 2023 / Revised: October 15, 2023
Accepted: November 5, 2023
**Corresponding Author: kimmj@gwangju.ac.kr
Dept. of Nursing, Gwangju Univ, Korea

I. 서 론

우리나라는 단일민족국가라는 오랜 역사를 유지하며 한민족으로써의 위상을 다지곤 하였으나 세계화의 영향과 함께 경제 분야의 눈부신 성장 및 과학기술의 발달 그리고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농업 분야에도 변화가 생겼다. 2004년 농업 분야의 허가된 외국인의 수가 43명에서 2007년 2333명으로 증가되면서 다문화의 인력의 유입이 나타났으며[1] 현재에도 농가인구가 2010년도에서 2021년도까지 27.6%의 감소함[2]으로 노동력에 대한 문제가 만성적 상황으로 대두되면서 외국인 노동력에 더욱 의존하게 되었다[3]. 이러한 한계점의 대응 방안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활발해졌으며 이와 더불어 1990년대 이후 국제결혼이 농촌사회를 중심으로 활성화되면서 결혼을 통한 이주 여성의 증가가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의 다문화 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4]. 그 이후 해외 이주 노동자와 결혼이민자에 이어 귀화자 및 유학생 등이 매년 증가하여 국내의 외국인 비중이 2012년 144만여명에서 2022년 224만여명으로 10년 사이 50% 이상이 증가하였으며[5][6] 전체 국내 인구의 비중으로 본다면 2.84%에 불과하였던 체류외국인의 비율이 2022년 4.37%로 증가함에 따라 인종과 국적도 다양화되었다. 이러한 인구의 변화는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결국 이러한 인구의 변화는 보건의료서비스 측면에서 서비스 대상자의 폭이 타문화권 대상자까지 확대됨을 의미할 것이다.

다문화인식은 우리 사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집단들의 서로 다른 각각의 문화와 생활양식을 인지하여 이해하며, 각 민족이 지니고 있는 차별화된 문화와 생활양식을 근본으로 서로의 문화적 배경과 차이점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다[7]. 간호대학생은 학과의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임상실습을 수행하게 되는데 임상실습 현장에서 사회적, 문화적으로 다양한 간호대상자를 만날 기회가 증가하고 있으며 졸업 후 간호사가 되어서도 의료 현장에서 직접 간호제공자로, 또는 학교를 포함한 지역사회 내에 있는 다문화 대상자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 간호 인력으로 그들의 문화에 대한 독창성과 특수성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8][9][10].

이처럼 보건의료의 대상자가 글로벌화 되어 가고 있

는 현재에서 미래의 간호를 이끌어갈 간호대학생들의 다문화관련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선행요건으로 다문화인식을 확인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감성지능은 다양한 상황에 접하였을 때 자신과 타인의 감성의 차이를 이해하고 조절하여 적합한 감성을 활용하여 서로를 조절하는 능력으로[11] 다문화라는 보편적 상황에서 벗어난 시점에서 대상자와 간호적 입장에서 대상자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신뢰를 형성해야 전인적 간호가 이루어질 것이다. 즉 다문화 대상자를 간호할 때 문화적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성지능은 적절하게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12] 감성지능이 높다면 다문화권의 대상자를 간호함에 있어서 언어적, 비언어적 감성 표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다문화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13].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와 미래를 대비하는 시점에서 다문화에 대해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지향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자신감을 다문화효능감이라고 한다[14]. 다문화효능감은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며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능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학생 시절부터 다문화효능감을 향상시키는 것은 미래 간호의 주역이 될 이들의 중요한 역량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이미 10여년 전부터 사회적 변화의 흐름으로 국내의 의료환경에서도 타 문화권 대상자를 만나게 되는 기회가 증가될 것이라고 하였으며[15] 다양한 문화를 가진 대상자를 간호할 수 있는 다문화에 대한 교육을 포함한 선행 요건들이 간호측면에서 필요할 것이라고 하였다[16]. 따라서 미래의 전문직 간호사로서 의료 현장을 책임지게 되는 간호대학생들은 다양한 민족과 문화를 접하게 되었을 때 이를 인식하고 감성적으로 이해하며 고유한 문화적 특성을 개별화하여 최적의 간호행위를 할 수 있는 다문화효능감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다문화인식, 감성지능, 다문화효능감의 정도를 파악하고 다문화인식과 다문화효능감과의 관계에서 감성지능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간호대학생들의 다문화효능감 증진을 위한 중재 방안 및 교육과정이나 비교과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으며,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다문화효능감은 다문화인식과 감성지능에 양의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다문화인식과 다문화효능감과의 관계에서 감성지능은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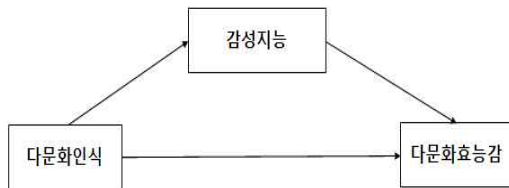


그림 1. 다문화인식과 다문화효능감의 관계에서 감성지능 매개효과 모형

Figure 1. Mediating effect model Emotional Intelligence between Multicultural perception and Multicultural efficacy

II. 본 론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다문화인식과 다문화효능감과의 관계에서 감성지능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자는 J도와 G시에 소재한 2개 대학의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수집 기간은 2023년 9월 7일부터 2023년 9월 20일까지이다. 대상자 수를 산정하기 위해 G-power program 3.1.9 version을 사용하였고, 유의수준 0.05, 효과크기 0.15, 검정력 0.95을 적용한 결과 최소 표본 수는 최소 166명이었다. 탈락률을 고려하여 18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이 중 응답이 불충분한 6명의 설문을 제외한 총 179명의 설문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도구

1) 다문화인식

다문화인식은 임애정(2011)[17]이 사용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총 19문항이며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임애정의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8이었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2$ 이었다.

2) 감성지능

감성지능은 Wong과 Law(2002)[11]가 개발한 WLEIS (Wong and Law Emotional Intelligence Scale)을 사용하였으며 총 16개 문항으로 자기감성이해 영역(4문항), 타인감성이해 영역(4문항), 감성활용 영역(4문항), 감성조절 영역(4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7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감성지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7$ 이었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0$ 이었다.

3) 다문화효능감

다문화효능감은 임주용과 오윤자(2010)[18]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4문항으로 일반기능 측면(4문항), 수업기능 측면(4문항), 인간관계증진 측면(3문항), 다문화가정배려 측면(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수업기능 측면은 대상이 간호대학생인 본 연구의 취지와 맞지 않아 제외하고 총10문항을 활용하였다.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7$ 이었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2$ 이었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3.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다문화인식, 감성지능, 다문화효능감의 정도는 기술통계를 이용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인식, 감성지능, 다문화효능감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와 ANOVA로 분석하고, 사후 검정으로 Scheffé test를 실시하였다.

셋째,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이용하였다.

넷째, 다문화인식과 다문화효능감과의 관계에서 감성지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program의 모델 4번을 이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성별은 여자가 129명(72.1%), 남자가 50명(27.95)였고, 연령은 21-25세가 93명(52.0%)로 가장 많았고 26-30세가 44명(24.6%), 31-35세 22명(12.3%), 36세 이상 11명(6.1%), 20세 이하 (5.0%) 순이었다. 본인이 생각하는 외국어 수준은 '하'가 123명(68.75), '중'이 51명(28.5%), '상'이 5명(2.8%) 순이었고, 다문화 교육 경험이 없음이 94명(52.5%), 있음이 85명(47.5%)이었다. 해외여행이나 거주 경험은 있음이 93명(52.0%), 없음이 86명(48.0%)이었고, 본인이 생각하는 대인관계 능력은 '중'이 131명(73.2%), '상'이 33명(18.4%), '하'가 15명(8.4%) 순이었다<표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인식은 본인이 생각하는 외국어 능력 수준($p=.002$), 다문화 교육 경험($p=.012$), 본인이 생각하는 대인관계 능력($p<.001$)에, 감성지능은 본인이 생각하는 외국어 능력 수준($p<.001$), 해외 여행이나 거주 경험($p=.049$), 본인이 생각하는 대인관계 능력($p<.001$)에, 다문화효능감은 본인이 생각하는 외국어 능력 수준($p=.001$), 다문화 교육 경험($p<.001$), 본인이 생각하는 대인관계 능력($p=.003$)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정 결과, 다문화인식은 본인이 생각하는 외국어 능력 수준이 '하'보다 '상'에서 더 높게 나타났고, 본인이 생각하는 대인관계 능력이 '하'보다 '중'이, '중'보다 '상'에서 높게 나타났다. 감성지능은 본인이 생각하는 외국어 능력 수준이 '하'보다 '상'에서 더 높게 나타났고, 본인이 생각하는 대인관계 능력이 '하'보다 '중', '상'에서 높게 나타났다. 다문화효능감은 본인이 생각하는 외국어 능력 수준이 '하'보다 '상'에서 더 높게 나타났고, 본인이 생각하는 대인관계 능력이 '하'보다 '상'에서 높게 나타났다<표 1>.

2. 다문화인식, 감성지능, 다문화효능감의 정도

간호대학생의 다문화인식은 3.45점(5점 만점), 감성지능은 5.11점(7점 만점), 다문화효능감은 3.77점(5점 만점)이었다. 감성지능의 하위영역은 자기감성 이해 5.35점, 타인감성 이해 5.20점, 감성조절 영역 5.01점, 감성활용 4.92점 순이었고, 다문화효능감의 하위영역은 인간관계증진 측면이 3.99점, 일반기능이 3.69점, 다문화가정

표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인식, 감성지능, 다문화효능감의 정도

Table 1. Differences of Multicultural perception, Emotional intelligence, Multicultural efficac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79)

Variable	Categories	n(%)	Multicultural perception		Emotional Intelligence		Multicultural efficacy	
			M±SD	t or F(p) Scheffé	M±SD	t or F(p) Scheffé	M±SD	t or F(p) Scheffé
Sex	M	50(27.9)	3.48±0.54	0.533 (.594)	3.64±0.67	0.345 (.731)	3.81±0.75	0.379 (.706)
	F	129(72.1)	3.44±0.48		3.60±0.58		3.76±0.62	
Age(year)	<20	9(5.0)	3.74±0.55	1.730 (.145)	3.56±0.65	1.391 (.239)	3.74±0.77	2.265 (.064)
	21-25	93(52.0)	3.50±0.48		3.71±0.55		3.90±0.62	
	26-30	44(24.6)	3.36±0.46		3.46±0.68		3.57±0.65	
	31-35	22(12.3)	3.38±0.53		3.56±0.63		3.75±0.75	
	≥36	11(6.1)	3.29±0.58		3.55±0.55		3.54±0.49	
Foreign language proficiency level	Upper ^a	5(2.8)	3.86±0.77	6.543 (.002)	4.01±0.57	13.349 (<.001)	4.56±0.61	7.145 (.001)
	Middle ^b	51(28.5)	3.61±0.51		3.93±0.58		3.95±0.67	
	Lower ^c	123(68.7)	3.36±0.46		c<a		3.46±0.55	
Multicultural Education Experience	Yes	85(47.5)	3.55±0.47	2.524 (.012)	3.63±0.63	0.442 (.659)	3.96±0.68	3.651 (<.001)
	No	94(52.5)	3.36±0.51		3.59±0.58		3.61±0.58	
Experience of traveling or living abroad	Yes	93(52.0)	3.50±0.49	1.583 (.115)	3.70±0.58	1.980 (.049)	3.86±0.64	1.849 (.066)
	No	86(48.0)	3.39±0.50		3.52±0.62		3.68±0.66	
Interpersonal skills	Upper ^a	33(18.4)	3.79±0.55	13.968 (<.001)	3.97±0.77	22.905 (<.001)	4.11±0.64	6.162 (.003)
	Middle ^b	131(73.2)	3.41±0.44		3.61±0.47		3.72±0.64	
	Lower ^c	15(8.4)	3.08±0.44		c<b<a		2.82±0.46	

배려 측면이 3.67점 순이었다<표2>.

표 2. 다문화인식, 감성지능, 다문화효능감의 정도

Table 2. Degree of Multicultural perception, Emotional intelligence, Multicultural efficacy (N=179)

Variables	Range	M±SD	Skewness	Kurtosis
Multicultural perception	1-5	3.45±0.51	.240	-.230
Emotional intelligence	1-5	5.11±0.60	-.219	1.085
Self-emotion appraisal		5.35±0.72	-.383	.452
Others emotion appraisal		5.20±0.86	-.446	.230
Use of emotion		4.92±0.80	-.213	.201
Regulation of emotion		5.01±0.84	-.143	.086
Multicultural efficacy	1-5	3.77±0.66	.124	-.500
General function aspect		3.69±0.70	.127	-.157
Human relationship improvement aspect		3.99±0.72	-.169	-.754
Multicultural family consideration aspect		3.67±0.72	.371	-.558

3. 다문화인식, 감성지능, 다문화효능감의 상관관계

간호대학생의 다문화효능감은 다문화인식($r=.596, p<.001$), 감성지능($r=.620, p<.001$)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성지능은 다문화인식($r=.471, p<.001$)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즉, 다문화인식이 높을수록,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다문화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하며 연구 가설 1은 성립되었다.

4. 다문화인식과 다문화효능감의 관계에서 감성지능의 매개효과

간호대학생의 다문화인식과 다문화효능감의 관계에서 감성지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16]가 제안한 PROCESS macro에서 model 4를 사용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샘플 5,000개로 지정하였고,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였다. 분석한 결과 <표 4>와 <그림 2>와 같이 다문화인식은 감성지능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beta=.572, p<.001$), 감성

표 3. 다문화인식, 감성지능, 다문화효능감의 상관관계

Table 3. Correlation among Multicultural perception, Emotional intelligence, Multicultural efficacy (N=179)

Variables	F1	F2	F3
	r(p)	r(p)	r(p)
Multicultural perception	1		
Emotional intelligence	.471 ($<.001$)	1	
Multicultural efficacy	.596 ($<.001$)	.620 ($<.001$)	1

† F1=Multicultural perception, F2=Emotional intelligence, F3=Multicultural efficacy

지능은 다문화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어($\beta=.471, p<.001$) 다문화인식과 다문화효능감의 사이에서 매개하였다. 즉 다문화인식과 다문화효능감의 총 효과는 $\beta=.769(p<.001)$ 이었으며 매개변수인 감성지능이 투입되면서 다문화효능감에 대한 감성지능의 직접 효과는 $\beta=.500(p<.001)$ 로 감소하여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 가설 2도 성립되었다.

다문화인식과 감성지능의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사용하였고, 검증 결과 부트스트래핑의 상한값과 하한값 사이에서 0이 존재하지 않아 간접효과가 검증되었다<표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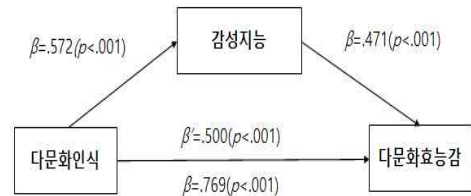


그림 2. 다문화인식과 다문화효능감의 관계에서 감성지능의 매개효과

Figure 2.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between Multicultural perception and Multicultural efficacy

IV. 고 찰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다문화인식, 감성지능, 다문화효능감의 관계를 파악하고 다문화인식과 다문화효능감과의 관계에서 감성지능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표 4. 다문화인식과 다문화효능감과의 관계에서 감성지능의 매개효과

Table 4.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between Multicultural perception and Multicultural efficacy (N=179)

Variables	β	S.E	t	p	95% CI	
					LLCI	ULCI
Multicultural perception → Emotional intelligence	.572	.081	6.996	<.001	.418	.733
Emotional intelligence → Multicultural efficacy	.471	.067	7.017	<.001	.338	.604
Multicultural perception → Multicultural efficacy	.500	.080	6.179	<.001	.340	.659
Multicultural perception → Emotional intelligence → Multicultural efficacy	.769	.080	9.528	<.001	.610	.929
F=90.792(<.001), R ² =.350						
Mediating effect significance verification						
	Effect	Boot SE	95% CI			
			Boot LLCI	Boot ULCI		
Total Effect	.769	.080	.610	.929		
Direct Effect	.500	.080	.340	.659		
Indirect Effect	.269	.055	.167	.384		

대상자의 다문화인식은 5점 만점에 평균 3.45점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미선의 연구[20]와는 비슷하였으나 남혜리[21]의 연구보다는 낮은 점수이었다. 이는 선행연구의 시점으로부터 시간의 흐름이 지났음에도 다문화인식의 점수에 큰 변화가 없거나 낮은 인식 점수는 그만큼 다문화인식에 대한 확산이 없었음을 의미하여 다문화인식의 정도를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 봐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더불어 일반적 특성과의 관계에서 다문화 교육 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다문화 관련 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정규 교육과정이나 비교과프로그램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하겠다.

감성지능은 7점 만점에 평균 5.11점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13][22]와 비슷한 점수를 보였으며 남혜리[21]의 연구에서의 감성지능 점수보다는 높았다. 하부영역별 정도를 분석하였더니 자기감성이해, 타인감성이해, 감성조절영역, 감성활용 순으로 점수의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선행연구[21]에서의 하부영역별 점수는 타인감성이해, 자기감성이해, 감성활용, 감성조절 순으로 본 연구와 다소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순서에 있어서 각각의 점수의 차이가 크지 않음으로 순서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의의를 둘 수 있겠다. 감성지능은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주변 사람들의 감성을 정확히 이해하여 감성을 조절하고 활용하는 능력[23]으로 향후 의료 현장에서 감정노동자로 업무를 하게

되는 간호대학생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이며 다문화 대상자를 간호행위의 대상자를 만나게 될 경우 특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일반적 특성에서 외국어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으로 외국어 능력을 증진하고 대인관계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함양하도록 지지하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다문화효능감은 외국어 능력 수준, 다문화 교육 경험, 대인관계 능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20]에서 다문화 교육 경험이 유의미하지 않았던 연구와 차이를 보였으며 또 다른 선행연구[15]의 연구에서 해외거주 경험이 유의미하다고 하여 본 연구 결과와 상이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효능감과의 차이에 대한 선행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으로 직접 비교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으며 추후에는 일반적 특성을 다양화하여 강화한 반복연구를 제안한다.

다문화효능감은 5점 만점에 평균 3.77점으로 조주연고 윤미선의 연구[24]의 3.65점보다는 높고, 전미숙[20]의 연구의 4.00점보다는 낮았다. 이러한 차이는 다문화 교육 경험의 유무의 차이로 보여진다. 조주연과 윤미선[24]의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84%가 다문화 교육에 대한 경험이 없다고 함으로써 다문화효능감의 점수가 낮았을 것으로 예측이 되며 본 연구와 전미숙[20]의 연구에서는 45% 정도의 학생들이 다문화 관련 교육을 받았다고 하여 점수가 상승하였을 것으로 짐작이 된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을 통하여 다문화효능감에 대한 역

량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근거자료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다수의 대학에서는 다문화 유학생들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취업과 관련하여서도 다문화 대상자를 간호 영역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분야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아짐으로 다문화 관련 전공 및 교양 교과목 신설과 비교과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통하여 다문화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다문화효능감 역시 높아질 것이다. 더 나아가 이론을 기반으로 실제적인 경험이 포함된 다문화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현장 중심 간호 인력을 배출해야 하는 간호학과 학생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다문화인식, 감성지능 및 다문화효능감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다문화인식은 감성지능, 다문화효능감과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 감성지능은 다문화효능감과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임으로써 간호대학생의 다문화효능감은 다문화인식 및 감성지능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 가설 1은 성립되었다. 즉, 간호대학생의 다문화인식이 높을수록,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다문화효능감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15][20]에서 다문화인식과 다문화효능감과의 관계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준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본 연구결과와 동일하였다. 이는 곧 다문화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얼마나 긍정적인가에 따라 문화적 배경이 다른 간호대상자들에게 역량 높은 질적 간호를 제공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다문화인식과 다문화효능감과의 관계에서 감성지능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감성지능은 간호대학생의 다문화인식과 다문화효능감과의 관계에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 가설 2도 성립되었다. 이는 다문화인식은 감성지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감성지능은 다문화효능감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위 변수들 간의 직접 관계 및 영향 요인 연구를 찾아보기는 힘들었지만 다문화인식과 감성지능과의 상관관계 연구[21], 다문화인식과 다문화효능감과의 관계 연구[15], 감성지능이 문화적 역량에 미치는 영향 연구[13], 다문화 사회에 대한 연구[25], 다문화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26] 등의 연구가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의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아직까지 다문화 관련 연구가 부족한 실정으로 향후 다양한 변수들을 포함한 반복연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V. 결 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다문화인식, 감성지능, 다문화효능감의 관계를 파악하고, 다문화인식과 다문화효능감과의 관계에서 감성지능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다문화효능감은 다문화인식 및 감성지능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다문화인식과 다문화효능감과의 관계에서 감성지능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 가설 1과 2가 성립되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다문화효능감을 높이기 위하여 긍정적 다문화인식과 감성지능을 함양할 수 있는 이론적 지식 측면과 경험을 통한 실무 측면에서의 다문화 관련 교과목 및 비교과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극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일부 지역의 간호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연구하였기에 이를 모든 대학생들 대상으로 확대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대상자의 폭을 확대하여 시행하는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둘째,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관련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으로 다문화효능감과 관련하여 다양한 변수를 투입한 확대 및 반복연구의 시행을 제언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반영하여 간호대학생들의 다문화효능감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검증 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 [1] EPS, <https://www.eps.go.kr/eo/EmployPerSystem.eo?natNm=kr&tabGb=02>
- [2] KOSIS,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EA1011&conn_path=I2
- [3] G.H. Yi, G.C. Kim, A Study on Housing Policies for Agricultural Foreign Workers in South Korea, *Korean Journal of Immigration Policy & Administration*, Vol. 6, No. 1, pp. 127-152, 2023.
- [4] Statistics Korea, "Social trends in Korea," pp. 143-151, 2019.
- [5] Ministry of Justice Korea Immigration Service, 2013 Immigration and Foreigner Policy Statistical Yearbook, pp. 53-61, 2014.
- [6] Ministry of Justice Korea Immigration Service, 2021 Immigration and Foreigner Policy Statistical Yearbook, pp. 46-57, 2022.

- [7] J.H. Park, J.S. Kim,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the Multicultural Military of University Students," *The Institute for Korean Culture*, No. 68, pp. 25-55, March, 2018. DOI : 10.15186/ikc.2018.3.68.25.
- [8] J.E. Jeong, Y.H. Kim, "Analyzing teachers' performance in managing project-based blended school exchange programs: based on the APEC edutainment exchange program (AEEP)," *Teacher Education Research*, Vol. 51, No. 2, pp. 215-230, 2012.
- [9] W.O. Oh, "Factors influencing cultural sensitivity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Vol. 17, No. 4, pp. 222-229, 2011. DOI : 10.4094/jkac hn.2011.17.4.222
- [10] J. Campinha-Bacote, "The process of cultural competence in the delivery of healthcare services," *A Model of Care. Journal of Transcultural Nursing*, Vol. 13, No. 3, pp. 181-185, 2002. DOI : 10.17547/kjsr.2017.25.2.120
- [11] C. Wong, K. Law, "The effects of leader and follower emotional intelligence on performance and attitude," *An exploratory study. The leadership quarterly*, Vol. 13, No. 3, 243-274, 2002.
- [12] M.A. Saberi, "The Role of Emotional Intelligence in Enhancing Intercultural Sensitiv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Brunel University, 2012.
- [13] Y.S. Kim, M.Y. Han,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Cultural Competence among Nursing Students: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Multicultural Sensitivity,"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20, No. 4, pp. 2145-2159, 2018. DOI : 10.37727/jkdas.2018.20.4.2145
- [14] E.M. Guyton, M.V. Wesche, "The multicultural efficacy scale: development, item selection, and reliability," *Multicultural Perspective*, Vol. 7, No. 4, pp. 21-29, 2005. DOI : 10.1207/s15327892mcp0704_4
- [15] N.H. Kim, S.Y. Lim, "Relationships between multicultural awareness, multicultural attitude and multicultural efficacy among nursing students," *Multicultural Education Studies*, Vol. 7, No. 4, pp. 169-184, 2014. DOI : 10.14328/MES.2014.12.31.169
- [16] N.Y. Lee, Y.S. Eo, and J.W. Lee, "Level of cultural competence (CC) and educational needs for cultural competence in nursing (CCN) i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1, No. 1, pp. 16-27, 2015. DOI : 10.5977/jkasne.2015.21.1.16
- [17] A.J. Lim, "Dental Hygienists' Multicultural Awareness and Actual Condition Survey of Education," Dankook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1.
- [18] J.Y. Lim, Y.J. Oh, "Perceptions and Efficacy of the Multiculture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Vol. 48, No. 10, pp. 143-157, 2010. DOI : 10.6115/khea.2010.48.10.143
- [19] A.F. Hayes, "An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NY: Guilford.
- [20] M.S. Jeon, "Relationship between Multicultural Perception, Acceptance, and Efficac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Multicultural Health*, Vol. 12, No. 2, pp. 1-8, September 2022. DOI : 10.33502/JKSMH.12.2.001
- [21] H.R. Nam,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Multicultural Perception on Cultur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Korean J Health Communication*, Vol. 14, No. 2, pp. 125-131, 2019. DOI : 10.15715/kjhcom.2019.14.2.125
- [22] H.Y. Jang, N.H. Lee, and M.Y. Moon, "Self-Esteem, Emotional Intelligence, and Concept of a Good Death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Multicultural Health*, Vol. 11, No. 1, 69-77, April 2021. DOI : 10.33502/JKSMH.11.1.069
- [23] O.S. Lee, M.O. Gu,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Communication skill, Clinical competence & Clinical practice stres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4, No. 6, pp. 2749-2759. 2013.
- [24] J.Y. Cho, M.S. Youn, "A Study on Attitude Toward Immigrants and Multicultural Efficiency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Multicultural Health*, Vol. 5, No. 2, 31-38, Sep. 2015.
- [25] E.A. Park, E.J. Lee, "Attitude about multicultural society of Korea male-female in the middle age,"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 4, No. 2, pp. 131 - 138, May 2018. DOI : 10.17703/JCCT.2018.4.2.131
- [26] H.J. Yang,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s for Preparation for Multicultural Society,"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 7, No. 1, pp. 42 - 48, Feb. 2021.
DOI : 10.17703/JCCT.2021.7.1.42

※이 연구는 2023년도 광주대학교 대학 연구
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